

### 3. 매산학교의 신사참배 거부와 자진폐교

1926년 새로이 문을 연 뒤 “매산남녀학교 금년도 입학생은 예년에 비하여 매우 증가되었사 오며”<sup>1)</sup>라는 기록에 보이듯 발전일로에 있던 매산학교는 1937년 뜻하지 않은 신사참배 강요 문제로 큰 시련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매산학교에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계 학교들이 당면한 일이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선교회 중에서도 남장로회 선교부에서는 신속하고도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힘으로써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방침을 바꾸어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는 한 폐교는 시간문제였다.

남녀매산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그해 9월이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사정은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순천로회 제21회 회록<sup>2)</sup>(1937. 5.)을 보면, 그해 매산학교의 보통과와 고등과 신입생모집이 중지되었고, 매산여학교 조직부가 4월에 폐지되었으며, 매산남학교의 교사 최의숙·김성일과 매산여학교의 교사 박창선·김관애가 사면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무렵 ‘풀턴성명’에 반대하여 학교를 계속 운영하도록 조선인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지만 선교부의 입장은 확고하였다. 그리하여 9월에 들어와 남장로회 소속 10개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폐교이유를 ‘제국교육의 근본을 교란한 데 대한 단호한 조치’라고 밝혔다.<sup>3)</sup> 이제 학교별 폐교시기와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교일	구분	학교(지역)	폐교형태
9월 7일		수피아여고·송일중학(광주), 영흥중학·정명여고(목포)	자진폐교명령
9월 8일		신흥중학·기전여중(전주)	자진폐교신청
9월 28일		매산중학·매산여중(순천), 광덕중학(담양)	자진폐교신청
불명		영명중학(군산)	불명

매산학교는 남장로회 소속 학교 중 비교적 늦게 문을 닫았으며 폐교가 필연적이라고 예상하여 미리 자진폐교 신청을 당국에 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순천 양(兩) 매산학교와 담양 광덕학교 폐쇄 직원·생도 공보(公普)에 전교(轉校)

지난 6일 전라남도 당국에서는 예수교 계통의 학교 광주수피아학교·송일, 목포 영흥·정명 4개교에 대하여 폐교처분을 한 것은 기보(既報)와 같거니와 금번(27일부)엔 순천매산학교·매산여학교 담양 광덕 학교 등 3개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당국에서는 폐교인가를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 깊은 전기(前記) 3학교는 28일부터 폐교되었고 매산·매산여학교의 생도들은 순천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고 광덕학교 생도들은 담양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여 각각 이부제 교수(教授)를 행하여 단 한 생도도 희생됨이 없이 수용할 예정이라 한다.<sup>3)</sup>

1) 『조선예수교장로회순천노회 제二十회 회록』, 1936. 5.

2) 김수진·한인수, 『한국기독교회사-호남편-』, 汎論社, 1980, 296~297쪽.

3) 『통아일보』 1937. 9. 29.

즉, 매산학교에서는 자진하여 당국에 폐교신청을 한 뒤 문을 닫았으며, 학생들은 순천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였다. 이로써 1913년과 1914년에 각각 세워진 남녀매산학교는 호남지역의 다른 기독교계 학교들과 함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회 소속의 10개 학교에 다니던 4,787명의 학생들은 정든 교정을 떠나야만 하였다. 매산학교를 비롯한 소속학교들의 폐교에 대하여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리하여 선교부의 교육사업은 끝났다. 38년 전 선교부는 전라지방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세웠다. 이제 학교의 교사(校舍)는 비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정부·나라 전체에 대한 선교부의 타협 없는 신앙 확신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기독교인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된 것이라고...<sup>4)</sup>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산학교를 비롯한 남장로회 계통의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직접적 이유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다. 즉 유일신(唯一神) 신앙을 생명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상'인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선교부들의 경우와는 달리 단호하고도 신속하였던 남장로회의 입장천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산학교의 폐교에는 조선인들 스스로의 고민과 결단보다는 선교사들의 견해가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사참배에 대하여 남장로회 선교부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자진하여 남녀매산학교의 문을 닫았다고 하여 이를 선뜻 '민족적 항일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산학교의 폐교는 한국인들이 아닌 선교사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전에 별다른 반일적 언행을 보이지 않았던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이 무렵에 와서 새삼스럽게 조선인들의 민족적 처지를 이해하여 일제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신앙적 신조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임이 분명하다. 즉 매산학교의 신사참배 거부투쟁은 '민족적'인 성격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동기와 과정이야 어떠하였든 간접적으로나마 이는 일제의 황민화(皇民化)정책에 대한 항거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신사참배가 단순한 국가의식(國家儀式)일 뿐이라는 일제의 주장과 달리, 이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정신적 침략이었다. 따라서 '학교 유지'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단호히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뒤에도 일제가 기독교계 병원에 대하여 소신사(小神社)인 신책(神柵)을 설치하도록 강요하자 남장로회 선교부는 1940년 10월 자진하여 선교회 소속 10개 병원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순천지역의 한국인 기독교인들도 신사참배 반대투쟁을 벌였다. 비록 1938년 4월 25일 구례읍교회에서 열린 제22회 순천노회 정기회에서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하여 1940년 9월 20일 일제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3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할 때 순천 일대에서도 17명의 교인들이 투옥되었다.<sup>5)</sup>

4) G. T. Brown, *Mission to Korea*, 1962, 156쪽.

5)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목사 : 김상두·김순배·김정복·김형모·김형재·나덕환·박용희·선재련·손양원·양용근·오석주·조상학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볼 때, 처음 매산학교의 신사참배 반대투쟁은 선교사들이 주도하였지만, 한국인 교인들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며 이 투쟁에 적극 동참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의 문을 닫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한국인 교인들의 이해가 없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렵게 세워져 키워온 학교를 잃으면서까지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정신을 지키려고 한 이들의 결단과 행동은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저항으로서 길이 기억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기독신보》.

《동아일보》.

G. T. Brown, *Mission to Korea*, 1962.

순천노회회년준비위원회, 『노회 50년사』, 순천노회, 1972.

김수진·한인수, 『한국기독교회사』 호남편, 범문사, 1980.

순천노회록편찬위원회, 『순천노회록단행본』 1집, 순천노회, 1986.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순천노회사료편찬위원회, 『순천노회사』, 순천노회, 1992.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김홍규, 「순천매산고등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김수진·주명준, 『일제의 종교탄압과 한국교회의 저항—순천노회 수난사건을 중심으로』, 콤팩출판사, 1996.